**마1125(1) Note**

**◆도우미: 겸손**

**겸손의 중요 요소 / 변승우 목사**

릭조이너;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겸손을 구해야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람을 연단하심, 쓰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1.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

 마귀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지혜를 바라본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약점과 한계를 바라본다

2.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1)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앎(욥기) ;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음

 2)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앎 ;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음

3)복음(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앎 ;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3.겸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겸손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대하1609. 이는 그 마음들이 그분을 향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강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와의 눈들은 온 땅에 두루걸쳐 이리저리 달리심이니, 이점에서 당신이 어리석게 행했도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부터, 당신은 전쟁들을 치르나이다.

하나님은 능력있는 자, 부한자, 지혜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 곧 겸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교만은 독립하게 하고,

겸손은 의지하게 합니다,

교만의 뿌리는 독립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독립하게 합니다만,

믿음은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위에 젖줄을 대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연히 기도하게 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기에 모든 영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갓난 아이들은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부모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를 뜻하며,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자들은 독립심이 강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릭조이너의 '빛과 어두움의 전쟁'에서 보면 마귀 군대의 선봉대는 '교만', '자기의',

'시기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생각도 '자기 의'에 속합니다.

무엇이 사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듭니까?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성에 성령을 받기까지는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며,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터부시 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그 원인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며 점차로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며 종교의 영으로 무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임해서, 자기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